

국내최초로 번역된 투키디데스의 명저

범우사 펴냄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아테네와 스파르타간의 '30년 전쟁'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엄밀한 사료 비판과 인간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로 서술한 역사서인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상·하)가 박광순씨에 의해 국내 初譯되었다.

“인류가 다시는 도달할 수 없을 지적 우수성을 가진 희망에 넘친 문명”이었던 고대 그리스의 정치체제와 세력판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돼 왔던 책이다. 또한 투키디데스는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규범적인 보편성”을 추구함으로써 “교훈적·실용적 역사학”을 창시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객관적이며 비당파적인 필치로 “역사 자체 속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을 구”하는 그같은 역사서술방식은 근대의 토인비에 가까워져서 이어졌다. 말하자면 “과학적 史家”의 비조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투키디데스는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그렇듯이 「역사학의 아버지」인 헤로도토스와 자주 비교된다. 헤로도토스는 인간의 구체적 행위 속에서 역사적 사실의 “독자적 특이성”을 탐구하여 “만담적이고 탈선하기 쉬운” 것에 대조적으로, 투키디데스는 “전조·신화·예언 같은 것은 경멸하고, 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엄격한 사료선택 및 역사서술로 일관했던 것.

이같은 종교·도덕 등 “비이성적인 요소”를 되도록 작품에서 배제하려 한 이유는 투키디데스의 사유가 “이성에 바탕을 둔 논리야말로 신뢰해야 할 유일한 보편으로 보는 그리스 인도주의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대의 전쟁기록을 남김으로써 미래의 전쟁의 결과를 예견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예견의 기초자료”로서의 효용성을 염두에 두고 저술하였으므로 ‘비이성적 요소’를 철저히 배격했다.

또한 투키디데스는 무력외교의 내적 생명을 파악한 최초의 역사가로 불린다. 따라서 흡스, 마키아벨리는 “엄격한 의미에서” 그의 후계자들이라고 운위된다.

이 책에는 최초의 ‘냉전’ 개념, 페리클레스의 ‘국장연설’, 서간문체, 戰記문체, 소피스트의 문답 형식 등 고대 그리스 특유의 갖가지 문체들이 총망라돼 있다. 투키디데스는 조약문에는 공식문서 문체를, 대전염병 묘사에서는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적 문체를 사용하는 등 다루는 주제에 따라 각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확립된 문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범우사/A5신/각 438, 414면/각 7000원

도판자료 풍부한 문답식 자연상식

동아출판사 펴냄 「자연의 이해」



하늘은 왜 푸를까? 나비는 겨울에 어디로 갈까? 지진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까? 바닷물은 왜 짠까? 누구나 이런 질문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본 경험이 있을 터이다.

그런가 하면 오리는 왜 뒤뚱거리며 걷나요? 올빼미들은 모두 부엉부엉하고 우나요? 번개는 어디서 생기나요? 물고기들도 잠을 자나요? 등의 질문으로 어린이들은 무시로 어른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社가 자연·인간 정신·인체에 대한 일반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펴낸 “자연과학 시리즈”의 첫번째 책인 「ABC's of Nature」를 번역하여 발간한 「자연의 이해」는 위와같은 의문들을 비롯하여 자연계의 수많은 신비에 관해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문답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알고 싶은 사항을 언제든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 일반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가급적 전문용어의 사용을 피한 것도 이 책의 특징이랄 수 있다. 그리고 서문에 의하면, “그저 재미삼아 잠깐 훑어보든, 교양을 넓히기 위해 정독을 하든 독자들이 부담없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도 이 책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 할 만큼 독자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길 것으로 생각되는 문제들로 호기심을 한껏 불러일으켜 시선을 집중시킨 다음 구체적이고도 자상하게 그 내용을 진술한다.

이 책은 4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지구의 신비”편은 지구의 구조와 대기에서부터 지질학적 변화 및 지형에 이르는 물리적 세계를 다룬다. 제2부는 “식물의 세계”로 이끼와 양치류에서부터 난초와 풀에 관한 갖가지 의문에 대한 해답을 들려준다. 제3부는 “동물의 세계”로서 “물고기는 왜 익사하지 않을까?” “알은 어떻게 껍데기로 둘러싸이는가?” 등 동물들의 생활과 습성을 다룬다. 제4부 “다양한 생물의 세계”에서는 열대우림이나 북극권의 툰드라지대 등 특이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같은 4개 부분은 각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인쇄된 색채표지로 구별된다. 따라서 책을 덮어놓아도 서로 다른 색깔의 색채표지가 보이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은 풍부한 그림과 사진을 통해 더 큰 흥미를 느끼며 매혹적인 자연계의 신비와 경이를 관찰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호화양장본에 충전연색으로 꾸며져 책의 품위를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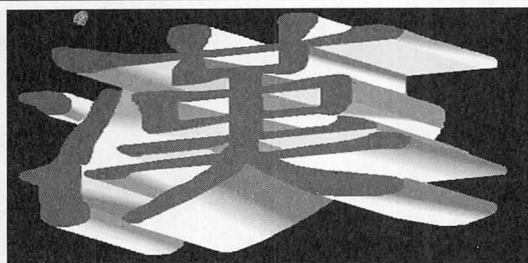
동아출판사/A4/336면/30000원



Macintosh Desktop Publishing System

맥킨토시를 줄여서 ‘맥’이라고 한다. 진정한 Full Pagenation(글자·사진·도표·그림 등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완성된 한 페이지를 만들어 내는 것)을 구현하므로 칼과 풀(대지작업)이 필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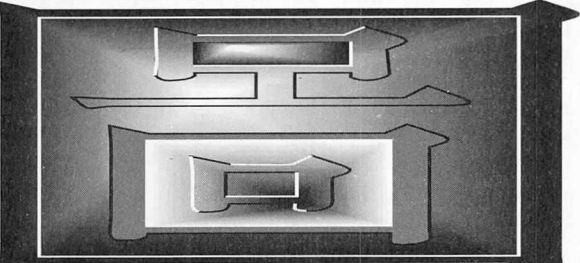
※ ECRM社의 PelBox/VR-30이 신속한 출력을 보장한다.



컴퓨터에는 약 4,500餘字의 漢字 밖에 없다. 그러나 脈漢圖에는 모든 漢字가 다 있다.

그 외에 中國簡字·日本略字·古語들이 있다. 진화/팩시 한통이면 화면용 폰트가 配達된다.

漢字는 人類精神의 寶庫로 들어가는 열쇠이다. 소리글자(입술기벼운소리)에 中毒된 現代人들의 荒廢한 精神世界를 治療할 수 있는 唯一無二한 治療劑이다.



도안·그림(그래픽)·사진들이 함께 처리된다. 따라서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脈漢圖

Tel 723-1955 Fax 723-6789
종로구 경운동88 수운회관 310호
代表 琴河淵

우리실정에 맞는 잡지편집 실무지침서

이제식 지음 「잡지기획과 편집디자인」



언제 어디서나 그랬겠지만, 앞으로는 능력자와 전문가가 더욱 우대받는 시대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중 편집디자인 분야는 편집자의 능력이 한눈에 간파되는 '시각적 예술' 분야이므로 더욱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고 이야기된다.

“잡지편집의 실무지침서”인 「잡지기획과 편집디자인」은 “그러한 실력의 실마리를 부여할 것”을 목적으로 삼은 책이다. 「원고지정실무서」와 「단행본과 아트디렉션」에 이어 “책을 만드는 책 시리즈” 그 셋째권인 이 책에서 저자 이제식씨는 “잡지편집에 관한 참고도서가 거의 없는 우리의 실정에 편집실력을 배양하는 데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출간의 의의를 밝힌다.

저자에 의하면 편집자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이 책의 편집과 제작을 지휘하고 연출

감독하는 관리자”이며 “책 만드는 전과정을 꿰뚫고 있어야 하며 필자의 소리를 충실히 독자에게 전달하는 창의적 커뮤니케이터”이다. 따라서 편집자는 창의적 사고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지만 “예술적인 것은 각 개인의 재질에 관한 문제이므로 저자도 더이상 어쩔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책은 “잡지편집자들에게 편집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 씨앗을 제공”하는 데 중점이 두어진다. “우리의 잡지 실정에 맞도록 실무와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엮었으며 최대한 이론과 실수가 일치하도록 노력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은 모두 10부로 구성돼 있다. “잡지기획과 기획서” “편집디자인 도구와 그리드 시스템” “레이아웃 기본원리의 응용” “사진 트리밍과 색 및 인쇄 지정” “잡지표지의 제호 구성 기법과 대지작업” “잡지의 차례구성과 분석” “잡지의 속표제지구성과 분석” “잡지의 판권장구성과 분석” 등이 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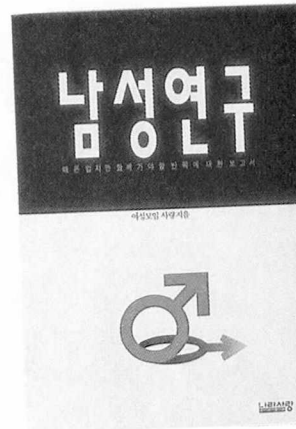
제3장에서는 레이아웃의 기본원리를 잡지편집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제6장에서는 저자가 야간에 실내에서 직접 촬영한 지명도 있는 기성잡지들의 표지를 타이포그래피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 외의 부분들에서도 풍부한 견본을 제시하며 저자의 열정과 경륜에서 얻어진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저자는 서문에서 편집디자인자들에게 “시간경력을 쌓지 말고 실력의 경력을 쌓으시라”는 ‘조언’을 한다. “잡지편집에도 철학이 있다”며 철학 없는 편집자를 질타한다.

미담/B5/240면/8000원

신세대여성들이 공동집필한 남성보고서

‘여성모임 사랑’ 지음 「남성연구」



목소리 높여 여성해방을 외치는 신세대 여성들이 쓴 ‘한국남성’에 대한 보고서. 미운 남성들에 대한 폭로와 분석이 도드라진 ‘남성에 대한 비방서’이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더 크고 중요한 사실은 그러나 한국남성이 여성들에게 ‘미운 것’을 하게 된 원인을 이해하고 여성과 함께 해결하자는 논지이다. 그래서 부제가 “때론 밋지만 함께 가야 할 반쪽에 대한 보고서”이다.

성군관대 여학생회 출신인 여성모임 ‘思量’의 회원들이 쓴 이 책 「남성연구」는 남자다움이라는 미명하에 언제 어디서든 남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남성의 천부적인 운명”을 긍정히 여긴다. 그 운명은 여성의 그것처럼 일종의 “사술”이어서 오늘날 한국남성의 삶을 과도한 부담감과 콤플렉스와 갈등으로 시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 따라서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피해자는 여성뿐 아닌 남성들도 마찬가지이므로, “남성과 여성의 연대”를 통해 性的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왜곡된 성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지은이들은 주장한다.

그같은 주장은 누구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책은 남성들이 직접 쓴 풍부한 사례와 여러 차례에 걸친 검증과정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설득력을 갖는다. 그 물증에는 「쇼펜하우어 수상집」 등의 외국 古書에서부터 「신세대 직장인들의 직장관념의식 및 생활패턴 조사」와 같은 국내 월간지의 설문조사 분석자료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고금동서의 방대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저자들은 한국남성이 측근한 이유를 일곱가지 콤플렉스에 억눌려 있기 때문이라고 정리한다. 마더 콤플렉스, 언달 콤플렉스, 가장 콤플렉스, 허세 콤플렉스, 카사노바 콤플렉스가 그것이다. 이들 콤플렉스는 일전에 출간된 「일곱가지 여성콤플렉스」가 지적한 여성들의 ‘착한 여자 콤플렉스’ ‘신데렐라 콤플렉스’ ‘슈퍼우먼 콤플렉스’ ‘지적 콤플렉스’ ‘외모 콤플렉스’와 각각 짝을 이루는 것. 따라서 남성성이든 여성성이든 “불합리한” 사회구조 및 생활기반에서 초래된 억압의 희생자들이므로 서로를 질시할 것이 아니라 연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곱가지 한국남성 콤플렉스” 외에 “한국남성의 함정” “新 남자의 일생” “남성의 사회사” 등 모두 7부로 구성돼 있다.

나라사랑/A5신/242면/4800원

책을 서점에 깔아놓고 그저 독자들의 선택만을 기다리시는 사장님... 이제 도서출판 정보기획 센터 『박스 마인드』를 기억하십시오. 『박스 마인드』는 독자들이 속옷 갈아 입듯 매일 사장님의 책을 입도록 합니다. 저희에게 많은 분들의 표지 디자인이나 편집하는 곳이나고 전화주셨습니다. 『박스 마인드』는 아직 책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표지나 편집 디자인도 하지 않습니다.

『박스 마인드』는 독자들에게 책을 효율적으로 광고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박스 마인드』는 독자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책을 읽을 것인가를 연구합니다.

저희들은 직장인들이 귀 출판사의 책을 읽도록 할 수 있습니다. 표지가 화려하고 편집이 뛰어난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에게 거절당하지 않을 만큼 괜찮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면 됩니다. 『박스 마인드』가 전국 직장인들에게 멋지게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박스 마인드』 광고시리즈 ③

책은 서점에 깔려있고 판매도 제법 된다고 그러는데... 돈을 만져볼 수 없으니 참!!!! 이게 우리 출판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박스 마인드』가 그 탈출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출판사가 모여 공동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훨씬 쉬울 것입니다. 함께 참여할 회원 출판사를 찾습니다.

도서출판 정보기획 센터 박스마인드(BOOKS MIND)

전화 : (02) 723-7529